

Showing Balance, Delivering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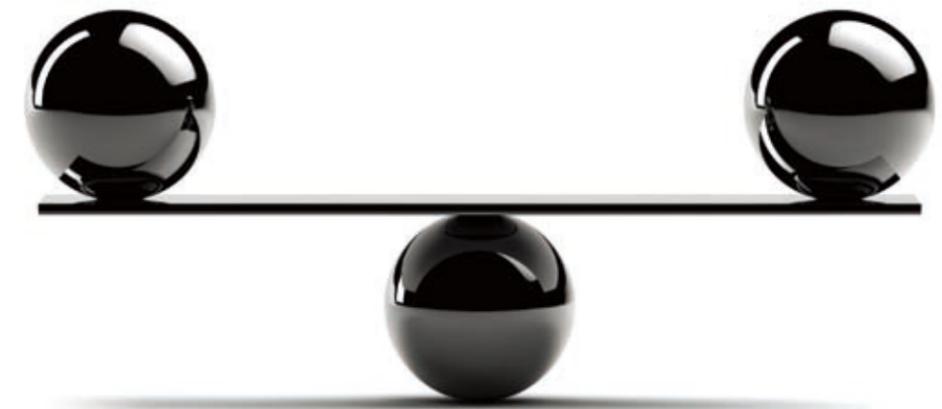
ANNUAL REPORT 2013

Contents

- 02. 재무현황
- 03. 회사정보
- 04. 지배구조평가 & 주주가치
- 06. 회장 인사말
- 08. 대표이사 인터뷰
- 10. BOD & 기업지배구조
- 12. VISION
- 14. 2013 회계연도 사업전략
- 16. Balance is the power to effect change
 - : 주요성과 및 수상내역
 - : 금융주치의 서비스
 - : 해외사업
 - : Investment Banking
- 24. Balance is the power to achieve sustainability
 - : 윤리경영
 - : 사회공헌
 - : 사회공헌 활동
- 30. Financial Review
- 46. 사업단장 및 본부장
- 48. 연혁
- 50. 국내 지점 및 해외 네트워크
- 52. 조직도

Showing Balance, Delivering Trust

지난 반세기 동안 한결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신증권은 금융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으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증권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주치의로서
금융 밸런스를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성장할 것입니다.



재무현황

당기순이익(단위: 백만원)

17,172

(단위: 백만원)	FY 2011	FY 2012
순영업손익	455,758	348,828
판매비와 관리비	359,263	344,624
영업이익	96,494	14,2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5,546	18,748
당기순이익	90,719	17,172
총자산	9,870,190	11,884,635
총부채	8,134,546	10,210,200
자본총계	1,735,644	1,674,435
보통주 주당순이익(단위: 원)	1,152	220

(단위: 천달러)	FY 2011	FY 2012
순영업손익	400,561	313,666
판매비와 관리비	315,753	309,886
영업이익	84,808	12,7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0,341	16,858
당기순이익	79,732	15,441
총자산	8,674,802	10,686,660
총부채	7,149,363	9,181,009
자본총계	1,525,439	1,505,652
보통주 주당순이익(단위: 원)	1,152	220

주) 2013년 3월 31일 미국환율 ₩1,112.10/USD와 2012년 3월 31일 미국 환율 ₩1,137.80/USD를 적용

회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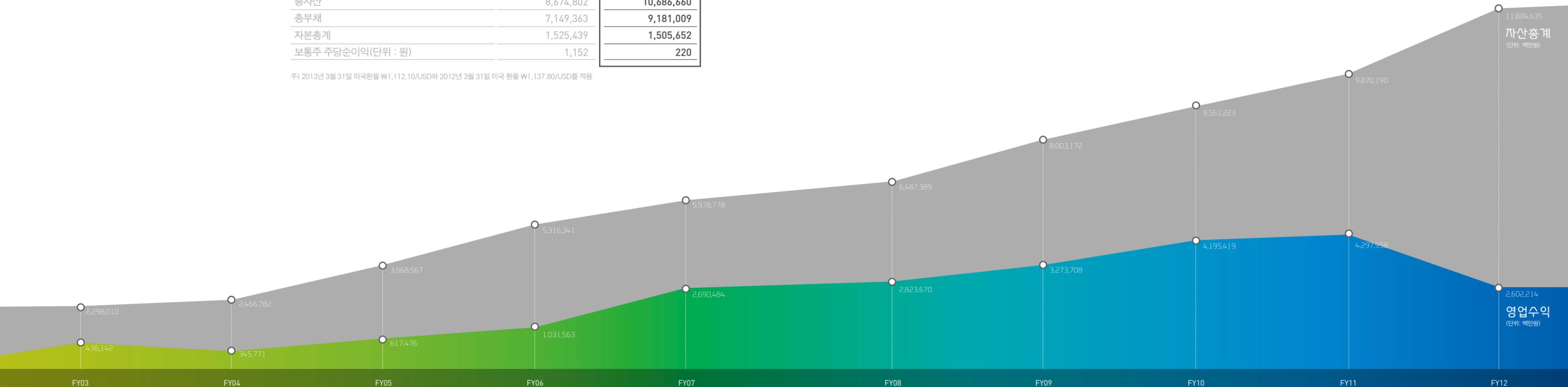
자본금(단위: 억 원)

4,349

자기자본(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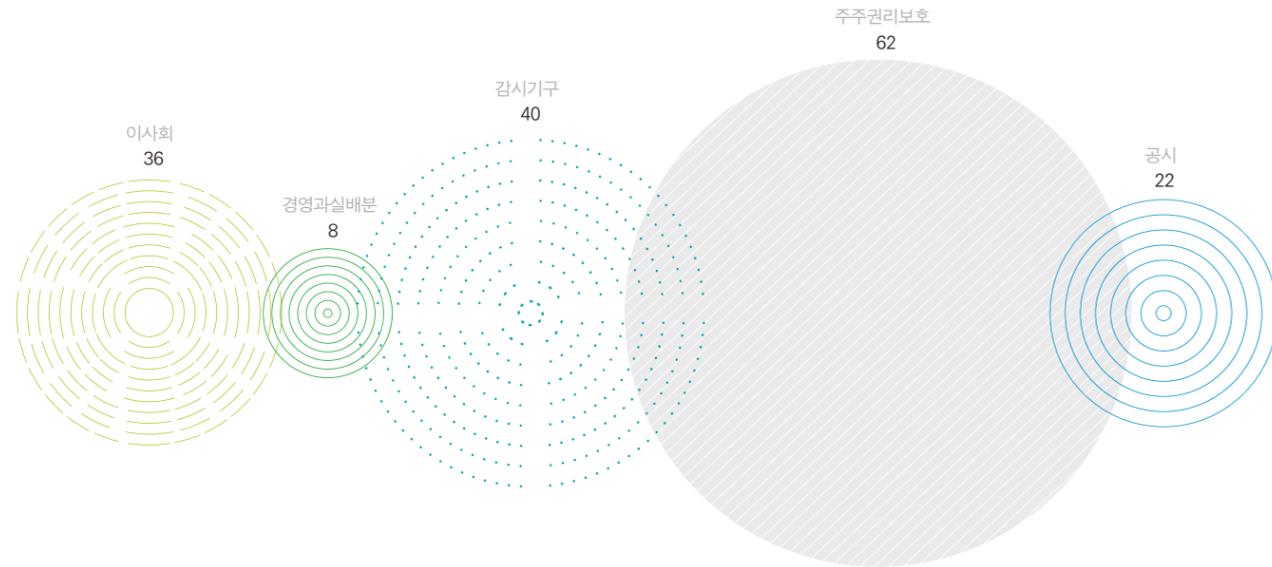
16,744

업종	금융투자업
사업부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설립일	1962년 6월 20일
상장일	1975년 10월 1일
임직원 수	2,298명(2013년 3월말 기준)
국내영업망	84 개 지점(1 영업부, 3 센터, 80 지점)
해외영업망	1 개 해외 현지법인(홍콩현지법인) 2 개 해외 사무소(일본 동경사무소, 중국 상해사무소)
계열사	대신자산운용(www.ditm.co.kr)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대신저축은행(http://www.daishinbank.com/) 홍콩 현지법인(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
본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빌딩
자본금	4,349억 원(2013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	1조 6,744억 원(2013년 3월말 기준)
자산총계	11조 8,846억 원(2013년 3월말 기준)



지배구조평가 & 주주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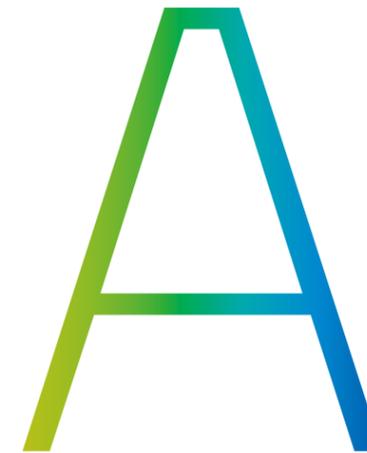
지배구조 평가결과 총점: 168



15년 연속 현금배당

(단위: 원)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주당배당액	보통주	500	1,500	750	500	2,500	650
	제1종우선주	550	1,550	800	550	550	700
	제2종우선주	-	-	-	-	-	-
배당수익률	보통주	3.7%	8.8%	7.3%	1.9%	3.3%	3.8%
	제1종우선주	5.9%	12.2%	13.4%	4.4%	7.4%	7.4%
	제2종우선주	-	-	-	-	-	-
당기순이익(억 원)	636	3,371	873	134	420	738	
배당금 총액(억 원)	295	1,135	574	387	382	491	
배당성향	46.4%	33.7%	65.7%	288.1%	90.9%	66.5%	

2012년 지배구조 평가결과 요약



평점 168점
 순위 21위(주권상장법인 710개사)
 등급 A(ESG 통합등급 B+)

2012년 신용등급

장기(회사채)
AA-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단기(기업어음)
A1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500	1,000	1,000	1,250	1,000	1,000	750	650	500
550	1,050	1,050	1,300	1,050	1,050	800	700	550
-	-	-	1,250	1,000	1,000	750	650	500
3.3%	4.9%	4.4%	5.2%	5.4%	5.9%	4.8%	5.3%	5.1%
5.1%	6.8%	7.2%	9.5%	12.9%	9.8%	7.7%	8.8%	8.4%
-	-	-	10.3%	13.6%	10.6%	8.10%	8.6%	8.2%
412	1,514	1,000	1,778	1,033	914	844	844	171
371	750	774	1,062	801	790	598	515	387
90.0%	47.6%	77.5%	59.7%	77.6%	86.5%	70.8%	56.8%	225.5%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대신증권 주주여러분!
 항상 대신증권을 성원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회사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FY2012는 상반기 유럽 재정 위기가 재차 심화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유로존의 공조로 위기감이 완화되고, 세계 주요 국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와 주식거래대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의 감소로 증권사들의 주수익원인 위탁수수료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위탁매매를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이러한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신뢰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그룹이 비상경영 선포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산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포의 통합 및 대형화를 진행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지속적 수익창출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이가, 자문업계 상위에 랭크된 창의투자자문을 전략적으로 인수 합병하여, 대신자산운용의 운용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주 여러분께는 안정적인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부문별로 모든 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B 부문에서는 전반적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및 회사채 부문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채권운용부문에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적절한 헤지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리테일영업 부문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자산영업 부문에서도 집합투자증권, 신탁, 퇴직 자산의 점진적 증대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모바일 부문에서 점유율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FY2013에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주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이번 회계연도는 지난해에 이어,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선진국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인한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 북한의 위협 등, 국내 리스크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리지 시장 침체 및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보다 나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업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신증권은 금융전문 서비스 기업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FY2013 전략주제를 『Catch up Moving Target』, 『빠른 조직』, 『자산기반영업 강화』로 선정하였습니다.

FY2013 전략주제의 달성을 위해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해나갈 것이며, 효과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미래 수익원을 발굴하여, 대신금융그룹의 미션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에 한발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지금의 환경은 예전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일상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기업은 고객의 투자수익과 동시에 절세, 노후대비 등 고객의 세분화된 투자 니즈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고객 개인에게 귀 기울여 진정한 고객만족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써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여 주주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대신증권은 앞으로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다져나가며, 고객과 주주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e Ahn Byung

대신증권 회장 이어룡

대표이사 인터뷰



Q.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분야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최근 증권시장은 브로커리지 부문은 침체되고 있는 반면, 자산기반영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FY2013에 시장과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을 통해, 자산 기반 영입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산증대에 힘써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금융자산 성장률을 달성하고, 자산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미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신규상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하고, 규제 및 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자사 상품협의체를 가동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나갈 것입니다. 7월부터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수행할 금융부문의 핵심으로 Konex 시장이 출범합니다. 당사는 이미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었고, 3개사의 등록주선을 했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선 Konex 시장을 중심으로 IB부문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FY2013에 들어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부문은 해외 시장투자입니다. 당사는 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인프라를 서둘러 갖추고, 해외투자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계열사인 대신저축은행의 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담보대출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에 해외증권에 투자한 고객층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Q. 대신금융그룹으로의 성장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신금융그룹은 증권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인 자산운용, 저축은행, 경제연구소간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로 성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신자산운용은 2013년 3월 한국창의투자자문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현재 조직 및 인력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의 우수 리서치 역량과 한국창의투자자문의 뛰어난 운용역량을 결합해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인수 합병 후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8월 중앙부산, 부산 2, 도민저축은행의 자산을 P&A(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인수해 설립했습니다. 지난 2기사업연도 동안 점포효율화 작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부실자산을 정리해 건전하고 튼튼한 저축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3기가 시작되는 2013년 하반기부터는 흑자손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그룹 내 시너지 강화를 위해 증권고객의 연계 대출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증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증권업계 최초로 설립된 경제연구소도 올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공학, 자산배분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계열사 영입을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Non-Equity 리서치센터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그룹 계열사 고객들의 멀티에셋에 대한 자산배분전략을 제시하며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신금융그룹은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과 경제연구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양한 신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자산을 확대해 나갈 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을 통해 지속적 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BOD & 기업지배구조



대표이사 **나재철**

회장 **이어룡**

부사장 **양홍석**

사외이사 **박찬욱**

- 서울지방국세청장 역임
- 재단법인 정평장학회 이사장 역임
- P & B 세무컨설팅 대표

사외이사 **박찬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임
- LIG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역임
- 하비스트 대표

사외이사 **이정훈**

-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역임
-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역임
- 변호사

사외이사 **김창봉**

- 국세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세평가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역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외이사 **이인형**

-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역임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역임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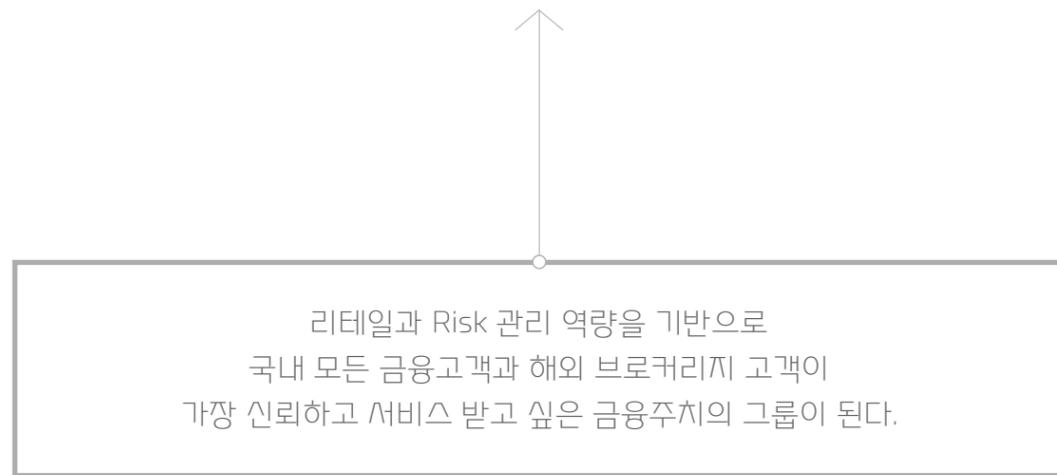
대신증권은 독립된 사외이사의 감독 하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명이 사외이사입니다. 대신증권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에서 실시한 2012 ESG 평가 중 지배구조 항목에서 168점을 획득하며 'A' 등급을 받았으며 주권상장법인 710개사 중 2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배구조 평가 기준인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가증권시장, KOSPI 200, 증권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VISION

MISSION>>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

VISION>>



핵심역량>>

과제>>



VISION 로드맵>>

PHASE 1 (~2015)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선도금융그룹 Retail 금융서비스 강화 • 압도적인 Risk관리/통제역량 확보 • 서비스강화 위한 국내제휴선 확보	네트워크 기반 확보 • 현지 네트워크 기반의 확보 진행
PHASE 2 (~2017)	국내 Retail금융 선도지위확립 • 업계 5위권 진입 • 확보된 자산을 토대로 한 연계밸류체인 강화(IB, CM) • 대신그룹 금융지주화	핵심역량활용 해외진출 • 핵심강점(IT-트레이딩-Risk관리) 중심 진출
PHASE 3 (~2020)	국내 최고 투자은행으로 성장 • 업계 3위권 진입 • 그룹 내 네트워크 시너지 강화	Pan-Asia벨트 지배력강화 • 중국자본시장 개방 대비 중국/동남아네트워크 집중 강화

대신금융그룹은 가치체계를 새로이 수립하며 핵심가치가 내포된 미션, 비전의 기존 체계에서 미션, 비전, 핵심가치라는 세 단계로 체계화 하였습니다. 또한 대신금융그룹은 향후 2015년, 2017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한 비전 로드맵을 통해 2015년까지 대신금융그룹은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선도금융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내 사업에서는 리테일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자산 증강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고, 압도적인 리스크관리/통제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제휴선과 그룹 전 부문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해외사업에서는 현지 네트워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지 법인의 성과 창출을 가시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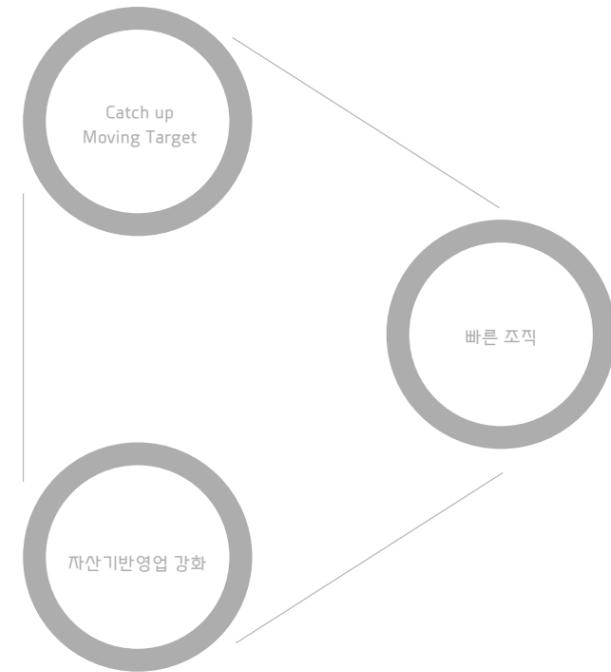
2017년까지 대신금융그룹은 국내에서는 리테일 금융그룹으로서의 선도지위를 확립하고 고객자산, 총자산 기준 업계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보된 자산을 토대로 IB, CM 부문을 강화하여 대신그룹 금융지주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해외사업부문에서는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신금융그룹의 핵심 강점인 IT-트레이딩-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현지 업체 제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대신금융그룹은 아시아지역 전문 선진금융그룹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룹 내 네트워크 시너지를 강화하여 업계 3위권에 진입, 국내 최고의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중국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중국/동남아 네트워크를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3 회계연도 사업전략

FY2013은 대신증권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확고하게 금융전문서비스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Catch up Moving Target』 『빠른 조직』 『자산기반영업 강화』의 3가지 전략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전략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의 전략 주제 및 목표를 바탕으로 당사의 미션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ATCH UP MOVING TARGET 1

명확한 목표 선정과 달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 **업계 내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금융자산 규모, 세전순이익 목표 수립**
최근 증권시장은 브로커리지 부문은 침체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상품 판매를 통한 자산기반 영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013 회계연도에 시장과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을 통해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 내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향상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성과지향 조직 구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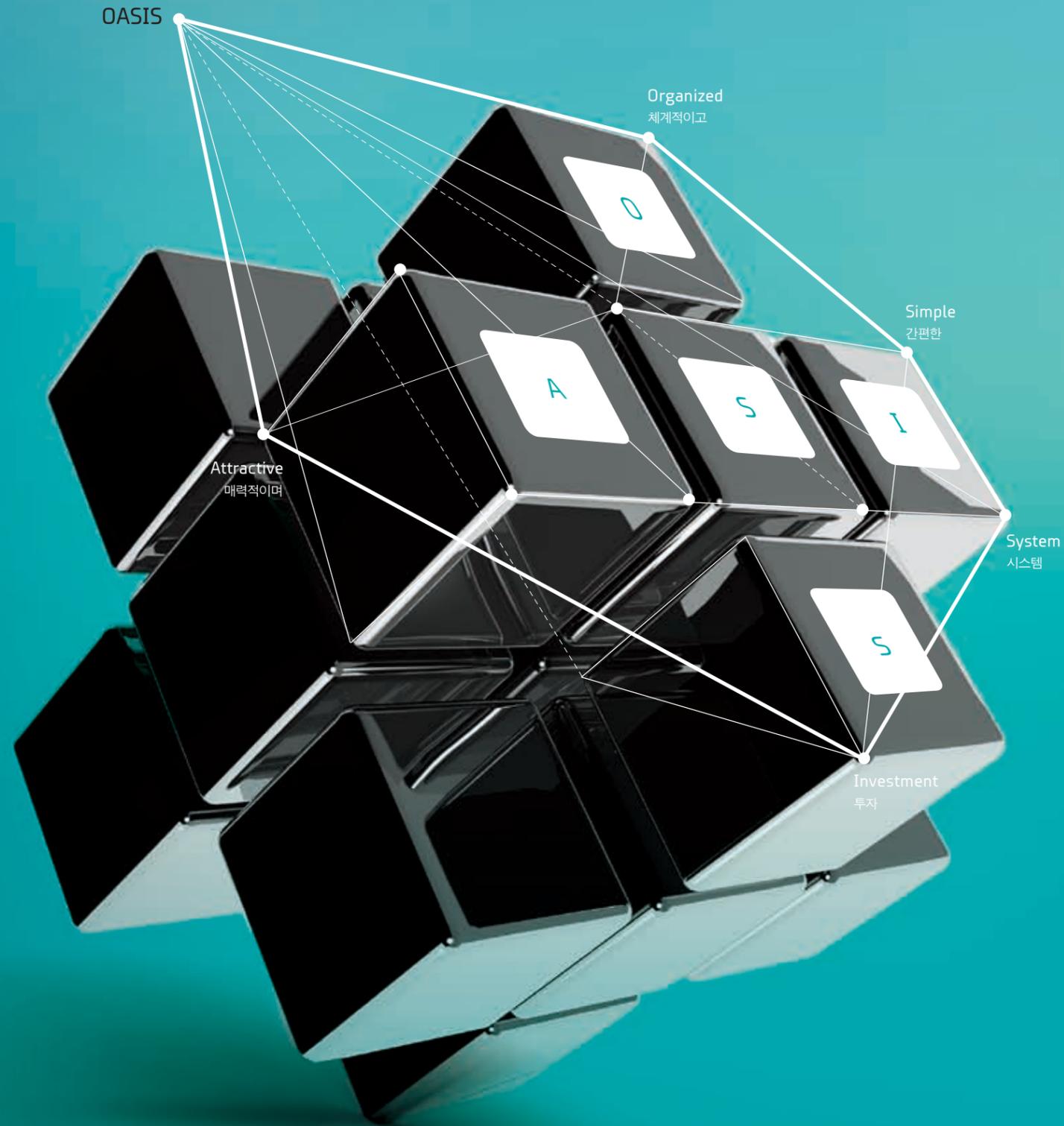
고효율 조직 구축, 그룹간 시너지 강화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 **저비용 고효율 조직**
대신증권은 2013 회계연도에도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통해 고성과 조직을 지향할 것입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미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신규 상품이나 수익원을 발굴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금융그룹 시너지 강화**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간 협업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온 대신증권은 협업 체계를 그룹으로 확장하여 조직간, 계열사간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은 2011년 저축은행 인수, 2012년 창의투자자문 인수 등 금융그룹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3 회계연도에는 이런 금융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차원의 Trend와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자산기반 영업 강화 3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신의 브랜드를 한 단계 향상시킴

- **상품영업 경쟁력 확립**
대신증권은 지난 50년 동안 항상 고객 자산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활동을 해 온 회사입니다. FY2013에는 고객 자산 증대를 위해 상품개발과 Line up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고객들은 은퇴 이후의 자산 설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상품, 서비스 개발과 영업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대신증권에서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고객서비스 체계 혁신**
대신증권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고객을 위해서도 리서치센터에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각 채널별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저가수수료 매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통해 대신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브랜드 경쟁력 강화**
50년 증권 명가의 대신의 명성에 걸맞게 CI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금융주치의 서비스를 정착하여 고객이 느끼는 대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표 상품 개발, 크레온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BALANCE IS

The power to effect change

불확실한 시장에 유연히 대응하며 금융밸런스를 지켜나가는
 대신증권은 최적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적극적이며 동적인 균형을 추구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속에서 금융의 밸런스를 잃는 대신증권은 고객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 밸런스를 통해 당신만의 밸런스를 잡는
 금융주치의로서 신뢰받는 금융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주요성과 및 수상내역



사이보스터치 시즌3 오픈
 2011년 이후 접수된 수백 건의 고객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이보스터치 시즌3 업데이트를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주문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사이보스터치 시즌3은 접속 속도와 화면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빠르게 주문을 낼 수 있는 번개주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CME, EUREX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24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시장 환경과 해외파생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CME 연계 KOSPI200선물 및 EUREX 연계 KOSPI200옵션 매매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사이보스터치는 지난 10월 '2012 한국스마트앱평가지수(KSAAI) 증권사 2차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시장 입찰 대행서비스 실시
 대신증권은 개인 투자자의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시장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인플레이션 헤지기능, 분리 과세 혜택 등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품이며,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유리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효과가 생깁니다. 10월 물가채 입찰에서는 입찰서비스 개시 후 처음으로 점유율 60%를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신자산운용, 한국창의투자자문 인수 양해각서 체결
 대신증권은 한국창의투자자문 지분을 100% 인수하는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창의투자자문은 2010년에 설립된 업계 5위권의 중견 투자자문사이며 13명의 투자자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창의투자자문의 현재 계약고는 5천 9백억 원 규모이며 서재형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가 대신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게 됩니다.

크레온 브랜드 리뉴얼
 대신증권은 12월 스마트폰 주식거래 특화 브랜드로 새로워진 크레온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증권전용앱 '크레온 모바일'을 출시하고 브랜드 로고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상품 판매 실시
 대신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으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DB, DC형)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IRA가 강제성이 없었던 반면, IRP는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 실시
 대신증권은 25일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미국장외시장 등에 상장돼 있는 7천여 개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는 미국의 주요 주식과 ETF 등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국 개별 기업과 업종에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 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총 7천여 개 종목입니다.

대신증권-오카상증권 전략적 제휴
 대신증권은 일본 금융그룹인 오카상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브러커리지 업무 등 일부 사업분야의 협력을 양 그룹 차원의 전략적 제휴로 격상시키면서 IB, 리서치, 금융상품, 인력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증권, 대신저축은행과 '연계신용' 서비스 시행
 대신증권은 7월부터 대신저축은행과 '연계신용'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고 연계신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신저축은행이 지정한 종목을 대출 종목으로 하여 한도약정방식(마이너스 형태)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3억 원까지 담보 평가금액 대비 최대 200~30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 7.5%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동점포 서비스 개시
 대신증권 '이동 점포' 서비스는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즈' 세일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동 점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영업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상내역

수상명	내용	일자	매체명
더벨 리스크 매니저 어워드 우수상	리스크관리 인프라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	2012.03.14	더벨
GBCI 1 위	증권사 부문 4년 연속 1 위	2012.03.22	GMC, JMCA
헤럴드 미디어 고객만족대상		2012.05.02	한국거래소
2012 고객사랑브랜드대상		2012.05.04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2012 대한민국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대상	MTS 부문 CYBOS TOUCH	2012.05.31	한국경제신문사
GCSI 1 위	증권사 부문 6년 연속 1 위	2012.06.28	GMC, JMCA
2012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대신증권 스마트 유니폼	2012.09.19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민국 모바일 앱어워드 2012 우수상	금융부문	2012.11.23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사부문(50년사 이상) 최우수 사사대상	2011.11.28	한국사보협회
웹 어워드 코리아	증권 분야 최우수상	2012.12.06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스마트 앱 어워드	증권 분야 대상(대신증권 사이보스 터치)	2012.12.13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리테일부문 우수상	2012.12.20	이투데이
2012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 평가대상	콘텐츠 접근성 부문 1 위	2012.12.2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주치의 서비스

FY2012 주요 업무 및 실적 현황

지난 FY2012는 FY2011의 금융주치의의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다양한 서비스를 토대로 금융 자산 외형확대에 중점을 두고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수익확대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FY2012는 금융자산 증가, 점포 대형화 및 효율화, 신규 수익원 및 채널 확대의 3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금융자산 증가 측면에서 밸런스 CMA, 법인수익률 우대서비스 출시를 통한 금리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상품 고객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CMA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주는 밸런스 CMA를 통해 개인 고객 수를 증대시켰고 법인 수익률 우대서비스를 통한 법인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중심의 목표/평가 체계로 변경하여 금융자산 영업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 금융자산 성과급 신설 및 금융자산 수익 성과급 한시적 지급, ELS 판매수당 등 다양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위탁 매매 영업뿐만 아닌 금융상품 영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채, 연금보험 등 절세 및 안정성 중심의 상품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브라질 국제 중개 서비스 실시 및 금융법인 특판 MMT 판매 및 특판채권의 지속 제공을 통해 금융자산 잔고 7조 3,516억으로 목표대비 105%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점포 대형화 및 효율화 전략에서는 지점 2개를 센터로 승격시키고 지점을 1개 신설하고 32개 영업점을 통합하여 점포의 대형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법인 및 거액자산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지역의 고객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특화점포인 강남역삼센터를 개설하였고 강서지역본부의 광명지점을 센터로 승격하여 대형화를 이루었습니다. 32개 지점을 통합하면서 인력 재배치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Resource를 재분배하였고 동일상권 내 중복 배치된 부분을 통합하여 영업점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내점고객이 감소함에 따라 세일즈 거점과 금융주치의 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형화 전략으로 접근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신규수익원 및 채널 확대 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CYBOS Touch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연계 및 담보대출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외부 서비스 제휴를 통한 제휴 증권거래 앱 등을 활용하여 고객유치를 추진하였고 온라인 컨설팅팀을 통해 비대면 계좌 및 소액고객 관리를 강화하여 고객만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모바일 주식 점유율은 FY2011 대비 2배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SNS 마케팅을 통한 우호적인 고객 확보 노력을 지속하여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 사내필진 운영 및 문화활동 연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동식 점포인 이동버스를 활용하여 IRP, CMA 계좌 등 계좌 개설이 필요한 법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널 확대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원칙과 윤리를 기본으로 리스크밸런싱의 실천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2013 회계연도 목표 및 전략

최근 금융상품 시장은 전세계적인 성장성 둔화와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유지로 인한 저성장 및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도 낮아진 시장 금리를 상회하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자산에 대한 Needs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주식시장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보다는 채권/ELS 및 ETF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맞물리면서 주식에 대한 자금유입이 부진하며 주식시장 거래대금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강점을 보이던 오프라인을 통한 주식거래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위탁매매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로는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Y2013에는 개인 고객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증대 및 수익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빠른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인 역량관리와 수익원 확대를 통한 생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빠른 조직으로는 유연한 시장대응을 위하여 업계동향 및 실적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업단 월/분기 단위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본부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본부장의 마케팅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본사의 마케팅 스태프 역할을 강화하여 조직화된 전사 마케팅을 실현하고 지역본부-본사 간의 유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직군을 분할하여 IM직군을 통해 위탁매매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PM직군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목표/평가 및 성과체계를 운영하여 직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주치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금융주치의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자산영업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산기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 중심의 금융상품 외형 및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CMA, 적립식 상품 등 기본 금융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Account Gathering 효과 및 고객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략상품 라인업을 지속 제시함으로써 수익성과 트렌드를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고객의 질세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브라질 국제 및 신인연금저축보험 등 절세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Service Manager 동반 영업을 통해 아웃바운드 영업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된 HNW부서를 통해 포트폴리오 진단 및 세무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HNW고객을 증대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접근 채널 확대를 통한 대출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대출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에 대해 팝업공지, 대신 블로그 등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 담보대출 수익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고객에 따른 금융상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KT와 제휴하여 '올레 신 제휴포인트-대신 밸런스CMA'를 출시하여 이종산업간 융복합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타 업종 간의 WIN-WIN서비스를 통해 양사의 고객만족을 높이고 제휴업체의 신규고객 유치를 강화하여 이종산업간 리테일 고객을 공유하고 공동마케팅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감동센터의 상담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컨설팅팀을 통한 비대면 고객의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규고객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사업

대신증권이 추구하는 해외진출 추진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며,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과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해외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내의 금융소비자의 글로벌 투자상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해외의 협력파트너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해외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해외 진출 전략 방향에 맞추어 홍콩은 현지법인, 상해 및 동경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직접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는 해외 현지에 경쟁력을 갖춘 현지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해외사업 추진 전략은 해외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신증권의 강점과 현지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추진사례로는 현재 인도네시아 만디리증권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강점인 금융 IT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증권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당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금융회사 M&A,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직접진출, 해외 파트너와의 JV 사업, 해외투자 금융상품 개발, Global IB 업무 등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해외의 우수한 금융상품을 국내투자자에게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니즈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전략과 안정성, 수익성을 보유한 투자상품별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부문에 있어서는 Global 금융시장인 미국, 홍콩, 일본의 주식시장에 당사의 고객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CME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파생상품, FX 마진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Regional 증권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홍콩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선진국 보다 높은 아시아의 이머징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미 및 유로존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Global 금융시장으로 당사의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신증권은 아시아 시장의 집중과,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의 최소화 및 실질적인 성과와 수익창출이 가능한 해외사업을 전개합니다.

Investment Banking

FY2012 IB본부에서는 국내 우량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유·무상증자, 기업공개(IPO)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상품 및 최적의 Financing 구조 제안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FY2012 DCM(Debt Capital Market)부문에서 SK건설, SK케미칼, 대한항공,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채 인수를 통하여 DCM 시장에서 대신증권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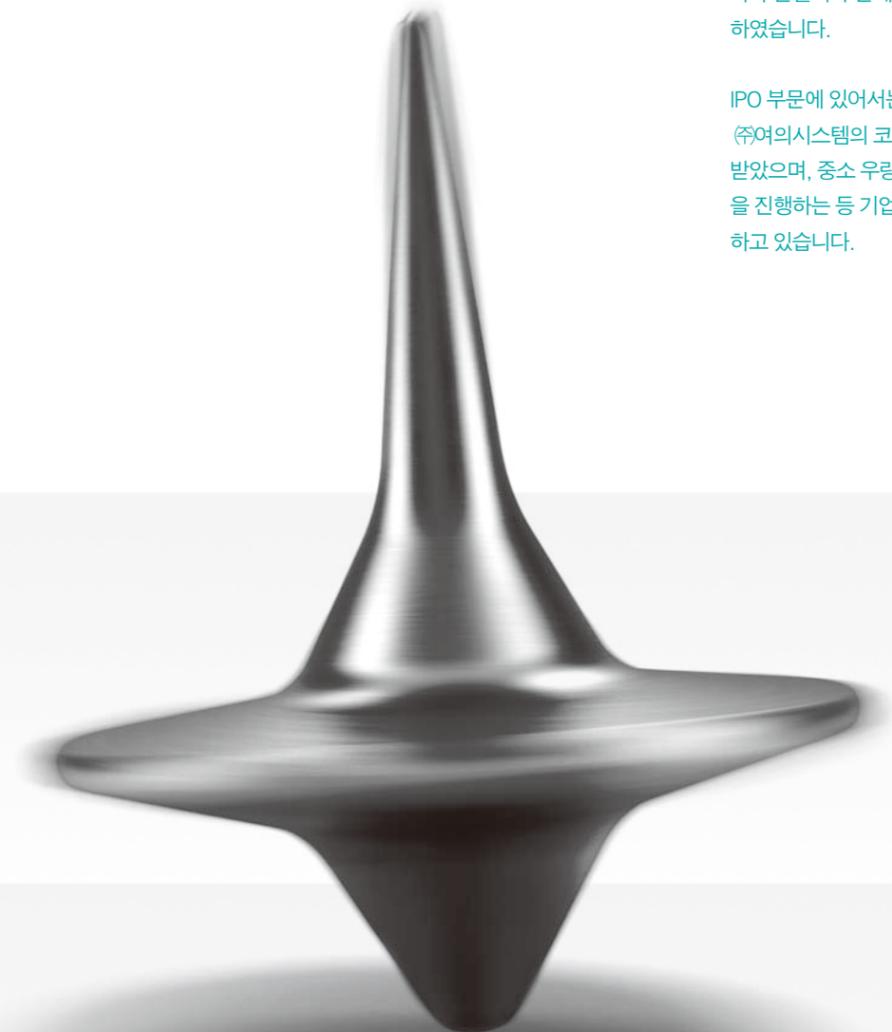
ECM(Equity Capital Market)부문에서는 특히 현대상선, 나이스홀딩스, 오리엔탈정공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하여 유상증자 주관실적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IPO 부문에 있어서는 산업공정제어 장비 업체 (주)여의시스템의 코스닥 예비심사청구 승인을 받았으며, 중소 우량기업과 꾸준한 대표주관체결을 진행하는 등 기업공개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개설예정인 중소 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KONEX)시장의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어 테라텍, 비나텍, 스탠다드폼 3개 기업을 상장시킨 바 있습니다.

FY2013 IB본부는, 타본부 및 리테일 부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내 유수의 발행 및 인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수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상증자 시장에서 달성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회사채 시장의 주관 및 인수 규모 확대는 물론 IPO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FY2013는 본부내 영업조직을 커버리지 기업 위주로 개편하여,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타겟팅을 통한 집중적인 관리 및 제안으로 다양한 부문에서의 딜 추진 확대와 영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 IB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따라, 신규상품 개발과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신규 업무분야에서의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기업의 효과적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추진합니다.

BALANCE IS

The power to achieve sustainability

지난 반세기 동안 신뢰기업을 향한 도전과 열정으로 성장해온 대신증권 이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금융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 큰 도전을 시작합니다. 고객 한분 한분의 한결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신증권의 밸런스가 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 환경재단 지원
- 생명의 물 기금 마련 동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수재의연금 모금 및 기탁
- 장애우돕기 자산음악회 지원
-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개최
-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지원

- 태안반도 재난복구 지원
- 전남지역 경제인 협회 지원
- 국립암센터발전 기금 기탁

- 장학금지급(대신송촌문화재단)
- 학술연구지원

교육·학술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 지원

지역사회 지원

윤리강령

1.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이자 존립 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자 합니다.

2. 임직원 근무윤리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주주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익 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업시민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모든 임직원은 영업 및 개인활동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와 제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자 합니다.

6. 공정경쟁에 대한 윤리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 및 가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가치체계

1. 고객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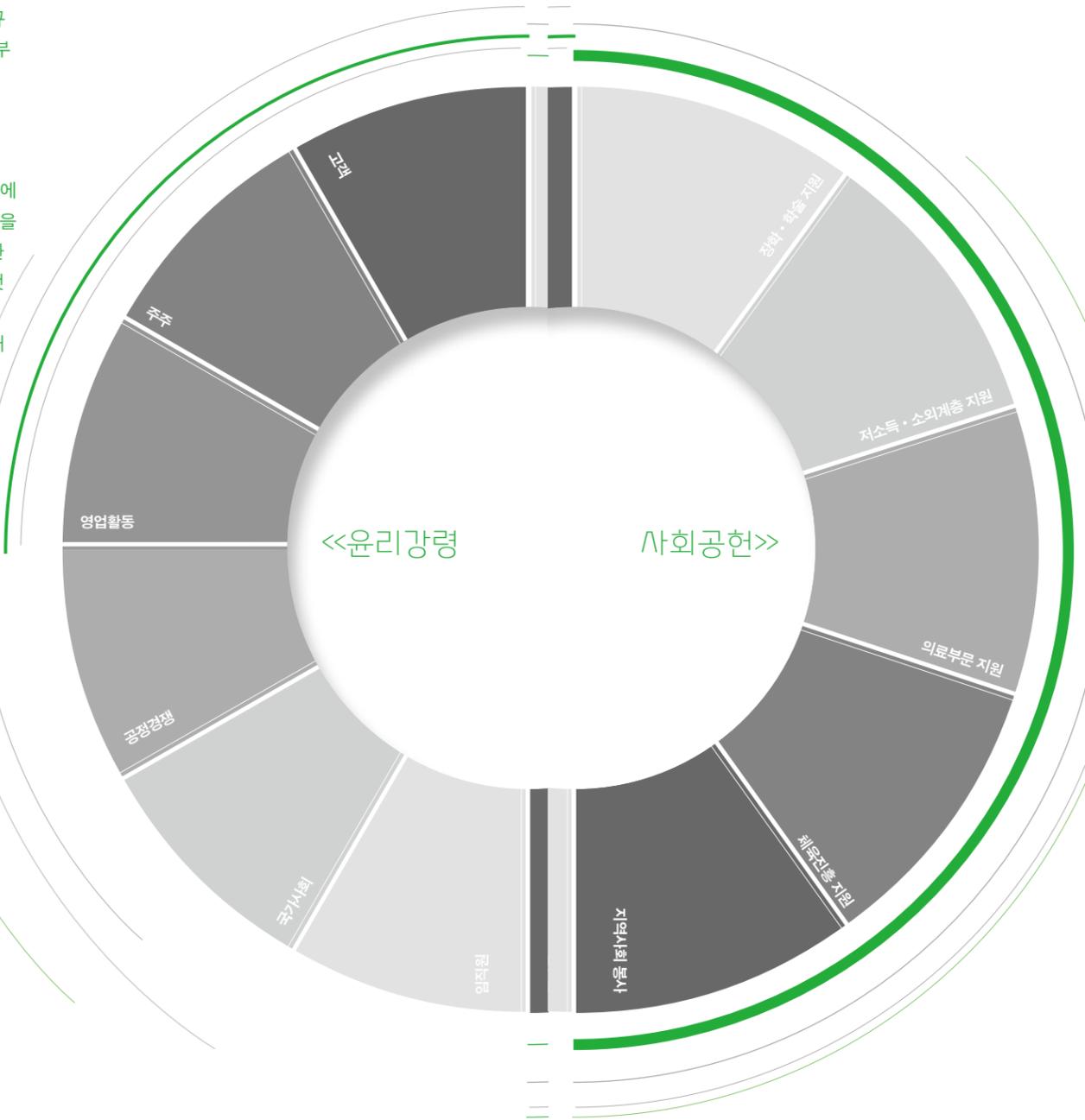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와 기업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고객·주주·정부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 가치를 공유해 가는 증권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 인재제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직원의 자질과 윤리적 소양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가 하는 것은 경영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부단히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인사를 실현하여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준법합리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법규준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고객·주주·정부 및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시함으로써 윤리적 기업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사회공헌

대신증권은 창립 초기부터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기부출연, 협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에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부문지원, 문화예술 지원, 학술연구 지원 등 기업이념에 부합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송촌문화재단 주요활동

의료부문 지원

- 1.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 2. 구순구개열 환아에 언청이 환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사업

체육진흥 지원

- 1. 지역 우수 선수 발굴 지원
- 2.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지역사회 봉사

- 1. 대신송촌도서관 운영
- 2. 전남지역 경제인협회 지원

대신송촌문화재단

1990년 7월 20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증권업계 최초의 순수 문화재단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1976년부터 '송촌장학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1987년 8월부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구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1990년 5월 재단 설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해 7월 탄생한 대신송촌문화재단은 대신증권 공익문화사업 창구로서, 기업에서 축적한 이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학·학술 지원

- 1.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
- 2.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기초 제공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 1.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국빈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 2. 지역사회 공헌

윤리경영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후원금 지원
대신증권은 12월 28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 사랑의 성금 9백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국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들 후원 사업과 해외 후진국의 지역개발사업,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위한 사업, 식량위기 대응사업, 재난대응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문화재단,
고려대 경영대에 10억 원 기부
대신증권문화재단은 12월 26일 안암동 고려대학교 총장실에서 경영대 대형강의실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10억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세계 50대 경영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려대 경영대학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전달된 10억 원의 기부금은 경영대학 내에 학부생을 위한 대형강의실 건립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 '양회문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대신증권은 12월 28일 중앙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부는故 양회문(영어영문 69학번, 前 대신증권 회장) 동문의 유지에 따라 대신증권과 대신증권문화재단이 기금을 출연해 조성한 '양회문 장학기금'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국신 총장을 비롯해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과 양홍석 이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7명이 자리하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신입사원 '사랑의 행군' 성금 기부
대신증권은 신입사원 극기훈련으로 실시된 '사랑의 산악행군' 행사를 통해 적립된 성금을 국립암센터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번 사랑의 행군 성금은 신입사원 및 임직원 57명이 산악행군에 참여해 1km를 걸을 때 마다 5천원씩 적립해 모은 금액입니다. 총 금액은 1,140만원으로, 국립암센터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사랑의 행군행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게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하고, 상생과 도전의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금 지원
대신금융그룹은 12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회에 학술연구지원금 6백6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주요 사업은 박물관 전시 유물 확충에 기여하는 유물구입 기증, 학술연구 발전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술지원,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활동, 다문화 가정의 문화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신금융그룹은 2009년에 500만원, 2010년에 500만원, 2011년에 6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2012년 현재까지 총 2,26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신증권문화재단,
구순구개열 환아 의료비 지원
대신증권문화재단은 11월 9일 전남대학교병원과 구순구개열 환아 의료비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신증권문화재단은 건국대, 부산대, 전남대 등 대학병원에 총 4억2000만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대학병원 의료진과 함께 구순구개열 환아 의료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신증권문화재단은 지난 8월 건국대학교병원과도 6천 만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순구개열 환아 의료비지원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대신증권, 아프리카에 '사랑의 우물' 건설
대신증권과 대신자산운용은 3월 7일 글로벌 SRI펀드 판매수익으로 조성된 기금 847만원을 아프리카 전문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아이러브 아프리카'에 '사랑의 우물' 건설 기금을 지원하여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키톤도니 초등학교의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금융그룹 FY2012 4분기 장학금 지급
대신금융그룹은 2012년 11월 21일 전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154명에게 4분기 장학금 49,551,700원을 전달했습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 49,551,700원, 3분기 135,784,650원 등 지속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후원금 지급
대신증권문화재단은 10월 31일 서울시립교향악단에 학술연구지원금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신증권문화재단은 클래식 음악을 통해 교류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서울시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신증권문화재단은 2011년에 250만원을 전달하는 등 2012년 현재까지 총 5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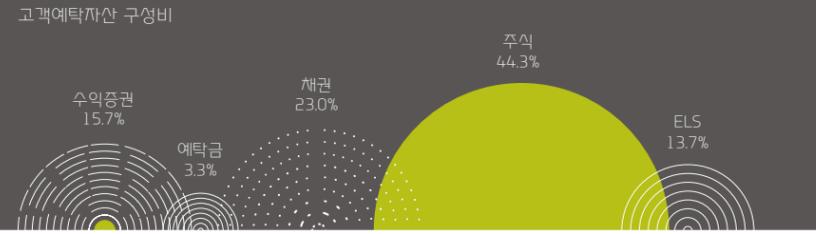
(재)성정문화재단 학술연구 후원금 지원
대신증권문화재단은 6월 15일 (재)성정문화재단에 학술연구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정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진흥 및 국제문화 교류와 문화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이번 지원금은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국제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업, 청소년 예술단체 운영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후원금 지원
대신증권문화재단은 4월 20일에 한국건축역사학회에 학술연구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 하였습니다.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역사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건축역사학에 관한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간행, 건축역사학에 관한 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견학회 등의 개최, 건축역사 연구와 전통건축물 보존 복원에 기여하는 학술연구 용역, 국내외 관련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후원금 지원
대신증권문화재단은 3월 22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에 학술연구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의 주요 사업은 근대미술의 조사 연구 지원, 작품의 수집과 보존, 기획 및 상설 전시 지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지원, 학술과 출판, 국제 근대미술의 작품과 정보의 교류 지원 활동입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FINANCIAL REVIEW

FY2012 BUSINESS HIGHLIGHTS

- 유럽 재정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이슈,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확대
- 2012년 하반기 이후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 회전을 감소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큰 폭 감소
- 미국 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스마트폰 증권전용앱 "크레온 모바일" 출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강화
- 증권 투자자문사 "한국창의투자자문" 지분 100% 인수 및 "대신자산운용"과 합병으로 자산영업 경쟁력 및 고객 자산운용 역량 강화
- 수탁수수료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사적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점망 통합 및 대형화 추진
- 국내 대형증권사 중 유일하게 15년 연속 현금배당 실시, 시가배당을 보통주 5.1%, 제1종 우선주 8.4%, 제2종 우선주 8.2%로 업계 최고 수준 기록

1. EXECUTIVE SUMMARY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함께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부각되면서 2012년에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적 공조와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은 경기 불확실성 심화 및 기업실적 전방 악화로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발행시장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고 주식거래 회전율도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6조 원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선물 및 옵션시장도 활력이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함께 모바일 거래비중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수료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브로커리지 시장의 정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은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개인투자자 주식거래 비중과 주식거래대금이 하락함에 따라 브로커리지 부문의 수탁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자산관리, 상품운용, Investment Banking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익구조 다변화와 함께 순영업수익은 전년대비 23.5% 감소한 3,48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업황 부진에 따른 전사적 비용절감에도 불구하고 순영업수익 감소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1.0% 하락한 17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고객예탁자산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주식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안정성이 높은 채권과 함께 퇴직연금, CMA, ELS 등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투자상품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 수익기반 강화와 수익 다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신증권은 자산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2013년 3월말 기준 회사의 자산총계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11조 8,846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상품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 양호한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여 유가증권 비중을 66%까지 확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자산부채비율이 각각 405.3%, 113.6%에 달하여 재무건전성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국내 대형증권사로는 유일하게 1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주식	KOSPI	65,849	43,188	-34.4
	KOSDAQ	23,808	19,346	-18.7
선물		556,388	499,302	-10.3
옵션		16,497	11,885	-28.0

2. OPERATING RESULTS

순영업수익

2012회계연도에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 주식시장이 회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주식매매 비중이 감소하고, 주식거래대금이 위축되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비중 증가에 따라 수수료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회사의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부문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저금리 기조를 활용한 운용전략에 힘입어 상품운용수익은 전년대비 33.7% 증가한 90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또한 자산영업 경쟁력도 강화함에 따라 2013년 3월말 기준 고객예탁자산이 전년대비 20.9% 증가한 27.9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4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 부문 수익은 주식거래대금 급감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기업공개, 유상증자 부진으로 발행시장이 위축되었으나 Investment Banking 부문도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운영업수익은 전년대비 23.5% 감소한 3,48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상품운용, 금융서비스, 자산관리 등 자산영업 부문과 Investment Banking 부문의 기여도가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수익기반사업이 강화되고 수익구조도 다변화되었습니다.

운영업수익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브로커리지	3,016	1,762	-41.6
금융서비스(신용공여)	487	476	-2.1
자산관리	152	148	-2.7
Capital Markets	678	906	33.7
Investment Banking	145	125	-13.7
기타	80	71	-11.3
합계	4,558	3,488	-23.5

운영업수익 구성비

(단위: %)	FY11	FY12
브로커리지	66.2	50.5
금융서비스(신용공여)	10.7	13.6
자산관리	3.3	4.2
Capital Markets	14.9	26.0
Investment Banking	3.2	3.6
기타	1.8	2.0
합계	100.0	100.0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회사의 고객예탁자산은 전년대비 20.9% 증가한 27.9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주식 비중이 하락한 반면, 채권은 전년대비 74.8%, 수익증권은 46.8%, ELS는 66.2% 증가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고객예탁자산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주식	131,097	123,595	-5.7
채권	36,657	64,089	74.8
수익증권	29,875	43,854	46.8
ELS	23,051	38,311	66.2
예탁금	10,035	9,076	-9.6
합계	230,715	278,925	20.9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고객예탁자산 구성비

(단위: %)	FY11	FY12
주식	56.8	44.3
채권	15.9	23.0
수익증권	12.9	15.7
ELS	10.0	13.7
예탁금	4.3	3.3
합계	100.0	100.0

2012회계연도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1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자산 증대로 자산관리수수료, Wrap 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집합투자증권	69	60	-12.7
파생결합증권	68	61	-9.5
기타	15	26	73.6
합계	152	148	-2.7

Investment Banking 부문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CM 부문에서는 SK건설, SK케미칼, 대한항공,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하였습니다. ECM 부문에서도 현대상선, 나이스홀딩스, 오리엔탈정공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발행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보임에 따라 IB 수수료수익은 전년대비 13.7% 감소한 12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IB 수수료수익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인수추진수수료	105	90	-13.6
금융자문수수료	40	34	-13.8
합계	145	125	-13.7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판매비와관리비

회사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부문 수수료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비상경영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점 통합 및 대형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익에 연동한 성과급 및 인건비를 축소하고 지급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2회계연도 판매관리비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3,34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창립 50주년 기념광고, 크레온 모바일 출시 등 지상파 TV광고 실시로 광고선전비는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인건비	2,067	1,907	-7.7
전산운용비	219	217	-0.9
임차료	108	113	5.0
지급수수료	265	236	-11.0
광고선전비	127	140	10.1
감가상각비	357	335	-6.1
기타	450	398	-11.5
합계	3,593	3,346	-6.9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비

(단위: %)	FY11	FY12
급여 및 복리후생비	57.5	57.0
전산운용비	6.1	6.5
임차료	3.0	3.4
지급수수료	7.4	7.1
광고선전비	3.5	4.2
감가상각비	9.9	10.0
기타	12.5	11.9
합계	100.0	100.0

수익성 및 주주중심경영

2012회계연도 회사는 수수료수익 2,108억 원,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조 2,633억 원, 파생상품 관련 이익 6,347억 원, 이자수익 4,149억 원 등 2조 6,022억 원에 달하는 영업수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영업비용을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축하였으며, 비상경영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로 판매관리비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브로커리지 부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42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영업이익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영업수익	42,980	26,022	-39.5
영업비용	38,422	22,534	-41.4
영업이익	965	142	-85.3

2012회계연도 회사의 영업외수지는 지속적으로 순수익을 달성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대비 75.1% 하락한 130억 원, 영업외비용은 전년대비 63.3% 감소한 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순영업외수익은 45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영업외수지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영업외수익	520	130	-75.1
영업외비용	229	84	-63.3
순영업외수익	291	45	-84.4

영업이익과 순영업외수익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회사의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85.1% 감소한 18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1.1% 감소한 17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55	187	-85.1
법인세비용	348	16	-95.5
당기순이익	907	172	-81.1

대신증권은 이익의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배당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형증권사로는 유일하게 1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2회계연도 보통주와 제2종 우선주 1주당 500원, 제1종 우선주 1주당 55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배당금 총액은 387억 원, 보통주 기준 배당수익률은 5.1%를 기록하였습니다.

3. FINANCIAL CONDITIONS

자산

대신증권은 단순한 외형성장보다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최고의 금융전문서비스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말 회사의 자산총계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11조 8,846억 원에 달하였으며,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현금 및 예치금, 국공채, 대출채권 등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80%를 상회하도록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2012회계연도에는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현금성이 우수한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잔액은 전년대비 31.1% 증가한 7조 8,18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파생상품과 대출채권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군의 비중은 축소하는 등 탄력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산포트폴리오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현금 및 예치금	12,409	16,395	32.1
유가증권	59,619	78,182	31.1
파생상품	4,058	3,019	-25.6
대출채권	9,749	8,731	-10.4
유형자산	4,400	5,734	30.3
기타자산	8,466	6,785	-19.9
자산총계	98,702	118,846	20.4

자산 구성비

(단위: %)	FY11	FY12
현금 및 예치금	12.6	13.8
유가증권	60.4	65.8
파생상품	4.1	2.5
대출채권	9.9	7.3
유형자산	4.5	4.8
기타자산	8.6	5.7
자산총계	100.0	100.0

부채와 자기자본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개인투자자 매매비중과 주식거래대금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예수금 등을 포함한 예수부채는 전년대비 9.6% 감소한 9,07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조달금리와 스프레드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도증권, 매도파생결합증권 등 차입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증가와 함께 2013년 3월말 기준 부채총계는 전년대비 25.5% 증가한 10조 2,10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부채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예수부채	10,035	9,076	-9.6
차입부채	63,886	86,783	35.8
기타부채	7,424	6,243	-15.9
부채총계	81,345	102,102	25.5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부채 구성비

(단위: %)	FY11	FY12
예수부채	12.3	8.9
차입부채	78.5	85.0
기타부채	9.1	6.1
부채총계	100.0	100.0

회사는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1998회계연도 이후 1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최소 500원 이상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나 회사는 보통주 및 제2종 우선주 1주당 500원, 제1종 우선주 1주당 550원 등 총 387억 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잉여금은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말 회사의 자본총계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1조 6,74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기자본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자본금	4,349	4,349	0.0
자본잉여금	6,997	6,993	-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30	1,057	-6.4
이익잉여금	6,208	5,869	-5.5
자본조정	(1,327)	(1,523)	14.8
자본총계	17,356	16,744	-3.5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회사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2012회계연도 말 기준 총위험액은 전년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순자본이 감소하면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전년대비 103.1%p 하락한 405.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장외파생상품 운영기준 300%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산부채 비율도 금융감독원 기준을 상회하는 115%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억 원)	FY11	FY12	% YoY
영업용순자본비율	508.4	405.3	-103.1%p
자산부채비율	117.5	113.6	-3.9%p

Business Outlook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함께 선진국 경기회복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인한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 북한 핵 도발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2013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거래대금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브로커리지 부문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증권업계 수익성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과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대신증권은 자산기반영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금융자산 증대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 밸런스를 조절하는 금융주치의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의 니즈와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리지 부문 침체 및 저금리기조 장기화에 대응하여 효과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대신증권은 "고객 의 신뢰, 고객과의 상생, 고객을 위한 혁신"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신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2년 5월 17일자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대신증권주식회사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5월 23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 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원)

제52(당)기 2013년 3월 31일 현재
제51(전)기 2012년 3월 31일 현재

과 목	제51(전)기	제52(당)기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1,240,938,065,020	1,639,514,967,062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980,147,928,120	7,671,376,258,125
1. 매매목적보유금융자산	3,592,602,521,570	4,725,991,159,713
2. 파생상품자산	405,820,516,970	301,866,978,866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1,981,724,889,580	2,643,518,119,546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209,758,835,697	178,765,887,326
IV.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77,776,855,442	269,928,412,278
V. 대출채권	974,941,768,978	873,132,865,412
VI. 당기법인세자산	4,379,818,556	23,860,503,150
VII. 유형자산	275,543,443,241	387,132,886,437
VIII. 무형자산	58,332,187,286	46,147,335,649
IX. 투자부동산	164,451,169,523	186,258,464,750
X.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748,977,411
XI. 기타자산	783,919,947,710	607,768,576,793
자 산 총 계	9,870,190,019,573	11,884,635,134,393
부 채		
I.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959,684,656,322	4,134,224,459,358
1. 매매목적보유금융부채	103,329,858,500	131,548,366,000
2. 파생상품부채	548,530,860,944	206,209,707,349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2,307,823,936,878	3,796,466,386,009
II. 예수부채	1,003,537,129,408	907,600,954,337
III. 차입부채	3,299,349,663,746	4,324,741,155,584
IV. 사채	119,556,037,037	219,369,613,074
V. 퇴직급여부채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4,219,720,971	3,432,661,035
VI. 총당부채	2,270,277,755	2,507,886,586
VII. 이연법인세부채	51,571,743,155	47,260,329,095
VIII. 기타부채	694,356,493,416	571,062,818,912
부 채 총 계	8,134,545,721,810	10,210,199,877,981
자 본		
I. 자본금	434,867,000,000	434,867,000,000
II. 자본잉여금	699,713,072,438	699,253,626,841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2,959,650,984	105,697,614,463
IV.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액)	620,771,958,479	586,888,758,278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	4,565,267,461
V. 자본조정	4,565,267,461	[636,559,764]
자 본 총 계	[132,667,384,138]	[152,271,743,17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35,644,297,763	1,674,435,256,412
	9,870,190,019,573	11,884,635,134,393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제52(당)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51(전)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과 목	제51(전)기	제52(당)기
I. 순수수료손익	305,207,715,276	190,392,052,565
1. 순수료수익	319,536,611,291	204,646,902,930
2. 순수료비용	14,328,896,015	14,254,850,365
II. 순이자손익	[74,303,165,322]	[92,811,255,151]
1. 이자수익	179,566,738,948	195,136,377,710
2. 이자비용	253,869,904,270	287,947,632,861
III. 순매매손익	164,164,624,793	286,285,968,856
IV.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순손익	61,175,852,235	36,074,059,028]
V. 기타영업손익	[487,126,702]	1,034,868,730
VI. 순영업손익	455,757,900,280	348,827,575,972
VII. 판매비와 관리비	359,263,465,747	334,623,829,244
1. 인건비	201,511,496,052	186,624,376,599
2.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35,703,989,514	33,528,468,867
3.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122,047,980,181	114,470,983,778
VIII. 영업이익	96,494,434,533	14,203,746,728
IX. 영업외손익	29,051,279,264	4,544,027,103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5,545,713,797	18,747,773,831
XI. 법인세비용	34,826,807,355	1,575,617,532
XII. 당기순이익	90,718,906,442	17,172,156,299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7,809백만원 전기: 90,865백만원)		
XIII. 당기기타포괄손익	11,213,474,213	[7,262,036,52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1,213,474,213	[7,262,036,521]
XIV. 당기총포괄이익	101,932,380,655	9,910,119,778
XV. 주당순이익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	1,152	220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	1,206	243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	1,156	193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	1,145	219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	1,199	242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	1,149	192

자본변동표 (단위: 원)

제52(당)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51(전)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총계
2011.4.1(전기초)	434,867,000,000	703,182,029,232	101,746,176,771	589,351,402,937	[133,077,609,598]	1,696,068,999,342
당기총포괄손익	-	-	11,213,474,213	90,718,906,442	-	101,932,380,655
당기순이익	-	-	-	90,718,906,442	-	90,718,906,44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11,213,474,213	-	-	11,213,474,21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3,468,956,794]	-	[59,298,350,900]	410,225,460	[62,357,082,234]
연차배당	-	-	-	[59,768,350,900]	-	[59,768,350,900]
자기주식의 변동	-	[3,468,956,794]	-	-	[1,230,324,982]	[4,699,281,776]
기타	-	-	-	470,000,000	1,640,550,442	2,110,550,442
2012.3.31(전기말)	434,867,000,000	699,713,072,438	112,959,650,984	620,771,958,479	[132,667,384,138]	1,735,644,297,763
2012.4.1(당기초)	434,867,000,000	699,713,072,438	112,959,650,984	620,771,958,479	[132,667,384,138]	1,735,644,297,763
당기총포괄손익	-	-	[7,262,036,521]	17,172,156,299	-	9,910,119,778
당기순이익	-	-	-	17,172,156,299	-	17,172,156,299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7,262,036,521]	-	-	[7,262,036,52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459,445,597]	-	[51,055,356,500]	[19,604,359,032]	[71,119,161,129]
연차배당	-	-	-	[51,525,356,500]	-	[51,525,356,500]
자기주식의 변동	-	[459,445,597]	-	-	[20,791,658,736]	[21,251,104,333]
기타	-	-	-	470,000,000	1,187,299,704	1,657,299,704
2013.3.31(당기말)	434,867,000,000	699,253,626,841	105,697,614,463	586,888,758,278	[152,271,743,170]	1,674,435,256,412

현금흐름표 (단위: 원)

제52(당)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51(전)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과 목	제51(전기)	제52(당)기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199,264,178,531]	393,189,113
1. 당기순이익	90,718,906,442	17,172,156,299
2. 손익조정사항	107,818,997,290	118,330,708,284
(1) 매매목적보유금융상품 순매매손익	9,451,965,567	[14,715,144,412]
(2) 당기순익인식지정금융상품 순손익	18,306,050,043	151,366,323,910
(3) 파생상품관련손익	[12,559,777,521]	[123,050,732,740]
(4) 대출채권관련손익	[141,122,746]	4,483,173,465
(5)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35,703,989,514	33,528,468,867
(6) 외화환산손익	[1,981,789,584]	[830,384,009]
(7) 순이자손익	74,303,165,322	92,811,255,151
(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1,116,887,082]	[1,869,288,727]
(9)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처분손익	1,116,887,082	-
(10)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6,917,849,727	6,089,065,005
(11) 유형자산처분손익	[18,284,773,364]	1,280,249,769
(12) 무형자산처분손익	[992,000,390]	74,094,940
(13) 투자부동산처분손익	[18,691,223,862]	[931,515,772]
(14) 무형자산손상차손	639,437,323	1,603,500,001
(15) 종업원급여관련비용	2,160,833,119	4,297,681,827
(16) 기타손익	[15,295,975,045]	[23,482,897,674]
(17) 배당금수익	[7,139,380,724]	[13,898,758,849]
(18) 법인세비용	34,826,807,355	1,575,617,532
3. 자산·부채의 증감	[300,306,805,207]	[20,868,206,498]
(1) 예치금	152,235,096,249	[500,731,868,814]
(2) 매매목적보유금융자산	[141,552,729,323]	[1,110,910,003,963]
(3) 매매목적보유금융부채	44,608,068,685	20,250,982,938
(4) 당기순익인식지정금융자산	[963,051,704,700]	[601,316,252,393]
(5) 당기순익인식지정금융부채	876,630,135,900	1,276,799,147,648
(6) 파생상품	39,240,351,722	[114,286,197,447]
(7) 대출채권	56,125,659,200	98,464,645,439
(8) 예수부채	[401,365,526,471]	[95,903,170,673]
(9) 차입부채	231,999,036,576	959,458,015,412
(10) 퇴직급여부채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839,380,602]	[1,966,039,751]
(11) 기타자산	188,250,873,524	176,235,945,280
(12) 기타부채	[382,080,485,012]	[128,180,988,553]
(13) 손해배상공동기금	493,799,045	1,217,578,379

현금흐름표 (단위: 원)

제52(당)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제51(전)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과 목	제51(전기)	제52(당)기
4. 이자의 수취	166,244,106,884	185,153,323,267
5. 이자의 지급	[247,219,213,004]	[285,532,395,310]
6. 배당금의 수취	7,381,003,149	9,040,149,504
7. 법인세의 지급	[23,901,174,085]	[22,902,546,433]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84,200,533,750]	[216,676,867,518]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9,809,411,484	8,975,070,599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처분	6,394,143,112	2,184,403,935
3. 유형자산의 처분	35,188,777,967	829,129,500
4. 무형자산의 처분	3,103,795,200	2,747,012,450
5. 투자부동산의 처분	53,378,000,003	15,500,000,000
6. 보증금의 감소	7,120,116,481	18,812,227,989
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1,027,930,130]	-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144,030,816,326]	[89,074,760,771]
9. 유형자산의 취득	[42,451,525,330]	[169,961,838,820]
10. 무형자산의 취득	[464,298,000]	[2,669,729,498]
11. 보증금의 증가	[11,076,505,826]	[3,594,053,902]
12. 기타자산의 증가	[143,702,385]	-
13. 복구비용의 발생	-	[424,329,000]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134,835,022,010]	88,665,015,445
1. 사채의 발행	59,690,900,000	99,544,800,001
2. 콜머니의 증가	61,800,000,000	1,173,800,000,000
3. 차입금의 증가	-	468,321,943,330
4. 임대보증금의 증가	53,185,301,340	2,302,735,112
5. 배당금의 지급	[59,760,869,660]	[51,525,356,500]
6. 콜머니의 감소	-	[1,235,600,000,000]
7. 사채의 상환	[60,000,000,000]	-
8. 차입금의 감소	[109,972,882,853]	[340,588,466,905]
9. 임대보증금의 감소	[67,511,806,237]	[4,261,449,793]
10. 자기주식의 취득	[12,263,794,600]	[23,329,189,800]
11. 기타부채의 감소	[1,870,000]	-
IV.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814,916,178	[19,945,808]
V. 현금흐름의 증감(I+II+III+IV)	[411,484,818,113]	[127,638,608,768]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64,333,694,348	252,848,876,23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52,848,876,235	125,210,267,467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대신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첨부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3년 3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3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 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대신증권주식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2013년 3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3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자 조경순

대 표 이 사 나재철

사업단장 및 본부장

구희진 단장

Wholesale사업단



박규상 본부장

Wholesale 영업본부



유승덕 단장

Capital Market 사업단



배영훈 본부장

파생영업본부



안경환 본부장

채권영업본부



이동훈 본부장

자산운용본부



임홍재 단장

기업금융사업단



장우철 본부장

IB본부



윤춘선 본부장

IB금융본부



임병완 단장

금융주치의사업단



장경수 본부장

중부지역본부



이현식 본부장

강북지역본부



권인섭 본부장

고객상품본부



김병철 본부장

IT서비스본부



김경식

감사위원



송희

비서실장



김송규 본부장

인프라관리본부



조윤남 센터장

리서치센터



조경순 본부장

기획본부



이문수 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



최정석

준법감시인



홍대한 센터장

인재역량센터



신인식 본부장

강서지역본부



하창룡 본부장

강남지역본부



박동현 본부장

서부지역본부



김봉규 본부장

동부지역본부



박진규 본부장

금융주치의추진본부



연혁

<p>1960</p>	<p>1970</p>	<p>1980</p>	<p>1990</p>
<p>1962.07.27 삼락증권주식회사 설립</p> <p>1968.07.08 중보증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p>	<p>1975.04.22 대신증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p> <p>1975.10.01 서울증권거래소 (현 한국거래소)에 주식상장</p>	<p>1984.08.25 업계 최초 해외사무소(동경사무소) 개설</p> <p>1984.09.22 서울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주식상장</p> <p>1985.03.06 홍콩 W.I.C.O.와 자본합작계약 체결</p> <p>1985.04.12 일본 아마이치증권과 자본합작계약 체결</p> <p>1985.05.28 본사사옥 여의도로 이전</p> <p>1985.06.03 뉴욕사무소 개설</p>	<p>1990.07.20 대신송촌문화재단 설립</p> <p>1991.07.12 런던현지법인 설립</p> <p>1991.11.11 홍콩사무소 개설</p> <p>1992.10.02 대신전산센터, 대신정보통신으로 사명 변경</p> <p>1995.06.20 대신펙토링주식회사 창립</p> <p>1996.04.01 뉴욕현지법인 설립</p> <p>1996.06.12 상해사무소 개설</p> <p>1996.07.01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 상호변경 (변경후: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대신자산운용(주))</p> <p>1996.07.01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 상호변경 (변경후: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대신자산운용(주))</p> <p>1997.04.12 홈트레이딩 주문 시스템 오픈 (CYBOS DOS버전)</p> <p>1998.01.01 홍콩현지법인 설립</p> <p>1998.04.27 해외현지법인 축소 및 해외사무소 전환 (런던, 뉴욕, 동경)</p> <p>1998.06.09 대형사 중 최초로 인터넷 웹 트레이딩 개시</p> <p>1999.08.11 대신 콜센터 개설</p> <p>1999.08.31 일본 스미토모생명과 자본 및 업무 제휴</p>
<p>2000</p>		<p>2010</p>	
<p>2000.08.09 사이버영업소 1년만에 50호점 돌파</p> <p>2002.09.16 자사주 보통주 20만주 이익소각</p> <p>2003.07.21 한국배당주가지수(KODI) 구성종목에 선정</p> <p>2003.12.01 기업지배구조주가지수(KOGI) 구성종목에 선정</p> <p>2004.03.26 한국증권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상 수상</p> <p>2004.04.26 대만 폴라리스증권에 '사이보스2004' 수출계약</p> <p>2004.06.15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한국거래소)</p> <p>2004.12.27 신 사이버시스템 'U-사이보스' 출시</p>	<p>2005.09.26 기업설명회 개최 (뉴욕 등 미국 주요도시)</p> <p>2005.12.13 태국에 사이보스 선물거래 시스템 수출</p> <p>2006.04.03 고객 서비스현장 선포</p> <p>2006.08.21 차세대 ARS 시스템 오픈</p> <p>2007.04.15 차세대 홈트레이딩시스템 'U-사이보스 글로벌' 출시</p> <p>2007.11.02 런던증권거래소 2천만 GDS상장 (자본금 500억 원 증가)</p>	<p>2008.02.13 홍콩현지법인 '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 설립</p> <p>2008.07.09 중국 상해사무소 개설</p> <p>2009.04.22 자금이체업무(소액결제)를 위한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p> <p>2009.05.04 차세대 금융시스템 오픈</p> <p>2009.10.20 다우존스 한국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KOREA) 구성종목에 선정</p>	<p>2010.01.09 금융주치의 선포식</p> <p>2010.02.26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p> <p>2010.05.28 NEW CI 선포식</p> <p>2011.08.31 대신택속은행 업무 개시</p> <p>2012.06.02 대신평형그룹 선포</p> <p>2012.06.12 일본 오카상 증권과 전략적 제휴</p> <p>2012.06.20 대신평형그룹 창립 50주년</p> <p>2013.03.22 한국창의투자자문 합병 완료</p>

국내 지점 및 해외 네트워크

해외 네트워크

1. 홍콩 현지법인 (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

28th FL, 8th Queen's Road, Central, HK
Tel : 852-2167-8730, Fax : 852-2167-8911

2. 일본 동경사무소

8th FL, NAX Bldg, 1-3-2, Shinkawa, Chuo-ku, Tokyo, 104-0033, Japan
Tel : 81-3-3551-8088, Fax : 81-3-3551-5533

3. 중국 상해사무소

Room 809, Zhongrong Jasper Tower No.8,
Central of Yincheng Road Shanghai, 200120, PRC
Tel : 86-21-5010-5298, Fax : 86-21-5010-5296

국내지점

- 1. 강남선릉센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6 하이리빙 빌딩 1, 2 층 (02) 569-9233
- 2. 강남역삼센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3 아이엘파이낸스빌딩 2 층 (02) 3462-1630
- 3.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철산동 270 대신증권빌딩 2 층 (02) 2681-2311
- 4. 광양** :전남 광양시 중동 1318-3 해운빌딩 1 층 (061) 791-7800
- 5. 광주** :광주 남구 진월동 294-5 번지 아이안과빌딩 2 층 (062) 232-0111
- 6. 광화문**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80 번지 1,2 층 (02) 735-7571
- 7. 구리**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6-1 번지 리맥스빌딩 3 층 (031) 568-6600
- 8.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9-3 (054) 455-4600
- 9. 군산**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1 번지 퍼스트빌딩 1 층 (063) 442-3151
- 10. 나주** :전남 나주시 중앙동 88-2 송현빌딩 3 층 (061) 337-9696
- 11. 남인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 한국토지공사빌딩 3 층 (032) 435-8700
- 12. 논현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7 번지 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빌딩 2 층 (02) 3442-7500
- 13. 대구** :대구 중구 수동 30 대신증권빌딩 2 층 (053) 256-0063
- 14. 대구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0-1 벽산타워 3 층 (053) 558-6300
- 15. 대림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86-4 대신증권빌딩 1 층 (02) 849-4923
- 16. 대전** :대전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 1 층 (042) 253-6181
- 17. 도곡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29 동하빌딩 2 층 (02) 553-8400
- 18. 동대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561-1 범우빌딩 2 층 (053) 751-6040
- 19. 동대문** :서울 종로구 종로 4 가 5 번지한일빌딩 3 층 (02) 741-1711
- 20. 동래** :부산 동래구 수안동 1-11 대신증권빌딩 2 층 (051) 556-8200
- 21. 둔산** :대전 서구 둔산동 1033 대우토피아 2 층 (042) 482-1221
- 22. 마산** :경남 마산시 남성동 113 대신증권빌딩 1,2 층 (055) 243-2000
- 23. 마포** :서울 마포구 도화 2 동 173 삼창빌딩 1 층 (02) 701-7282
- 24. 명동** :서울 중구 명동 1 가 59-1 증권빌딩 3 층 (02) 757-8211
- 25. 명일동**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5-3 대신증권빌딩 2 층 (02) 3426-3551
- 26. 목동** :서울 양천구 목동 908 대신증권빌딩 2 층 (02) 2653-7778
- 2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860-1 포르모빌딩 3 층 (061) 284-4611
- 28. 무거동** :울산 남구 무거동 299-10 남운프라자 2 층 (052) 224-5500

- 29. 무등** :광주 동구 금남로 5 가 42 대신증권빌딩 1 층 (062) 223-6601
- 30. 반포**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1 반포쌍둥빌딩 동관 3 층 (02) 592-6200
- 31. 복현** :대구 북구 산격동 1237-1 대현빌딩 3 층 (053) 958-1711
- 32. 부산** :부산 중구 중앙동 2 가 10 대신증권빌딩 1 층 (051) 241-1500
- 33. 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33 번지 서면금융빌딩 3 층 (051) 806-5561
- 34.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6 비잔티움 2 층 (032) 667-1512
- 35. 부천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14 번지 서전빌딩 2 층 (032) 651-0830
- 36. 복안천**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6-6 번지 2 층 (032) 543-4500
- 37. 분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4 코스콤빌딩 3 층 (031) 702-5400
- 38. 사당**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53 골든시네마타워 3 층 (02) 3474-0600
- 39. 사하** :부산 사하구 하단동 589-16 청경빌딩 3 층 (051) 206-7474
- 40. 상계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6-1 번지 기업은행빌딩 3 층 (02) 3391-4654
- 41. 상무** :광주 서구 치평동 1213-3 번지 전국교수공제회관 2 층 (062) 371-0017
- 42. 서산** :충남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1 층 (041) 664-2151
- 43.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7-5 카이스빌딩 3 층 (02) 3477-2070
- 44. 송탄**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7-4 대신증권빌딩 3 층 (031) 663-1901
- 45. 수원** :광주 광산구 수안동 1427 번지 SI 타워 2 층 (062) 362-2300
- 46.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세영빌딩 4 층 (031) 224-9900
- 47. 수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57-1 세호빌딩 3 층 (031) 265-2733
- 48. 순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3-4 대명빌딩 4 층 (061) 724-8440
- 49. 시흥동**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3-5 서평빌딩 3 층 (02) 806-2077
- 50. 신촌**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1, 동인빌딩 5 층 (02) 719-3713
- 51.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5 중앙마케이트빌딩 2 층 (031) 405-9090
- 52. 안중**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49 아이맥스빌딩 3 층 (031) 681-8900
- 53. 압구정**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2 영신빌딩 2 층 (02) 546-3901
- 54. 양재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빌딩 2 층 (02) 574-0300
- 55. 여수** :전남 여수시 학동 36-1 이레타운 1 층 (061) 683-3280
- 56. 염창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3, 2 층 (02) 3661-2904
- 57. 영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9 송촌빌딩 2 층 (02) 2185-5000
- 58.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 57 신한은행빌딩 3 층 (02) 2678-8611

- 59. 영업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 769-2000
- 60. 오산** :경기 오산시 오산동 925-8 대신증권빌딩 2 층 (031) 375-8377
- 61. 올림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11 번지 올림픽프라자상가 3 층 (02) 404-3100
- 62. 용산시티파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 가 63-389 용산시티파크 101 동 106 호 1 층 (02) 749-4800
- 63. 울산** :울산 중구 학산동 63-5 대신증권빌딩 1 층 (052) 244-5100
- 64. 울산남** :울산 남구 삼산동 1474-2 한화손해보험빌딩 3 층 (052) 265-2266
- 65. 원주** :강원 원주시 무실동 1641-8 센터프라자 2 층 (033) 732-1711
- 66. 인천** :인천 중구 답동 24-1 덕원빌딩 3 층 (032) 763-8108
- 67. 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6-1 정도프라자 2 층 (031) 919-5033
- 68. 잠실신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2 트리저움상가 3 층 (02) 421-2332
- 69. 장안동**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3 양지빌딩 1 층 (02) 2215-4114
- 70. 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6-1 대신증권빌딩 2 층 (063) 275-4600
- 71. 정자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번지 젤존타워 3 차 2 층 (031) 726-7007
- 72. 제주** :제주 제주시 연동 2325-6 번지 타워프로빌 1 층 (064) 743-4131
- 73. 종로**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 알파 빌딩 2 층 (02) 733-8800
- 74. 진주**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4-10 번지 아이비타워 3 층 (055) 763-3900
- 75.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7-1 수협빌딩 4 층 (055) 281-6404
- 76.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0 동방빌딩 2 층 (041) 578-0535
- 77. 청담**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4 층 (02) 3443-0100
- 78.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1 가 62 대신증권빌딩 2 층 (043) 222-7290
- 79.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0 번지 에이치스퀘어 에스동 2 층(206 호) (031) 8018-4100
- 80. 평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1 번지 인탑스 빌딩 2 층 (031) 388-2400
- 81.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2 번지 경림빌딩 1 층 (054) 273-4411
- 82. 하계동**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8 대신증권빌딩 2 층 (02) 976-4793
- 83.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우 1 동 1434-1 마리나센터 3 층 (051) 704-3800
- 84. 흥제동**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301-2 흥제빌딩 5 층 (02) 395-8000

조직도

